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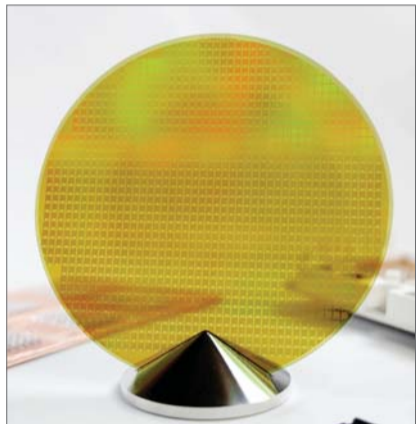
코스피	3264.96 (-13.72)	코스닥	1003.72 (+5.23)
금리 (미국 3년)	1.327 (+0.041)	환율 (원/달러)	1130.40 (+13.20(17일))



[뉴스]
7월 50대 백신접종
18~49세는
8월부터 선착순
02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고조 성장률 전망 ‘올리고 또 올리고’

IC인사이드 ‘반도체 성장률’
12%→19%→24%로 추가 상승
하반기부터 가격 상승 본격화
D램 매출 전년비 41% 증가 기대



인피니언은 전장용 반도체로 잘 알려진 기업이다. 사진은 전장 반도체에 쓰이는 SIC 웨이퍼 /인피니언

반도체 시장 ‘슈퍼사이클’ 전망이 또 다시 이어졌다.

17일 IC인사이드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24% 성장할 예정이다.

앞서 IC인사이드는 성장률을 12%에서 19%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5% 포인트를 추가로 높이면서 당초보다 성장 전망을 2배로 봤다.

IC인사이드 역시 D램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트단위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41%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D램 공급 부족 상황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세도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아날로그 반도체 성장도 25%로 D램에 이은 2번째 큰 성장이 기대된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기능을 하며, 센서가 대표적이다. 전장 반도체에도 여러 곳에 쓰인다.

로직 반도체 시장도 전년보다 24%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로직 반도체는 일반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를 가리키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등 열풍으로 IT 기기 보급이 빨라지는 반면 미중무역분쟁과 기술 격차 등으로 공급이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장 반도체 부문 성장이 뚜렷했다. 전장용 로직 반도체는 39%, 전장용 아날로그 반도체는 31%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됐다.

아울러 낸드플래시 매출액도 22%

늘어난다고 IC인사이드는 전망했다. 하락하던 가격도 2분기부터는 안정화되고 하반기부터는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D램과 낸드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분야다.

반도체 시장 성장을 예상한 곳은 IC인사이드 뿐 아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도 올해 반도체 시장 매출액을 전년 대비 197.7%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3월 10.9%에서 거의 2배 가량을 상향 조정한 것.

트렌드포스트도 5월달까지 메모리 가격이 보합세를 이어갔지만, 3분기부터는 D램 가격이 3~8% 상승하는 등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하반기부터는 가격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매출액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하반기 업계가 차세대 메모리를 출시할 예정으로, 수출 경쟁도 주요 볼거리”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중 유인우주선 선저우 12호 발사

17일(현지시간) 중국 간쑤성 주취안의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중국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운 선저우 12호가 창정(Long March) 2F Y12 로켓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중국은 우주 프로그램 착수 5년 만에 첫 유인 우주 임무를 시작했다. /뉴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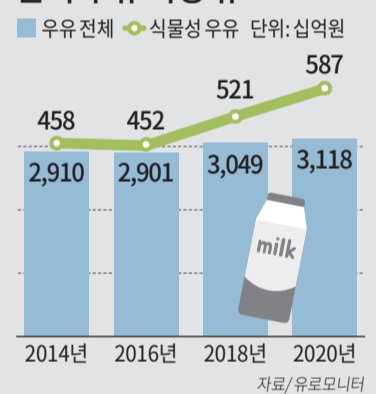
m-커버스토리

우유도 식물성이 대세 대체우유 시장 급성장

국민 식품 ‘우유’

업계, 프리미엄 우유 경쟁 격화
건강 중시, 글로벌 비건 열풍에
식물성·단백질 우유 개발 속도

한국 우유 시장 규모



국내 우유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서울우유·매일유업·남양유업 등 ‘우유업계 빅3’ 간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우유 또는 대체 우유 부문에서의 연구개발 강화 및 신제품 출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7일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 전체 우유시장 규모(온·오프라인 판매액 기준. 학교 급식, 병원, 회사, 군대와 같은 B2B와 면세, C2C 시장 제외)는 지난 2010년 약 2조6030억원에서 지난해인 2020년 3조1175억원으로 늘었다.

10년 전인 2010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우유시장 규모는 꾸준히 커졌다. 지난 2011년 2조7229억원, 2012년 2조9217억원으로 조금씩 오르더니 2018년에는 3조원대를 돌파했다.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확장성이 유지됐다.

우유 분야 시장 잠재력이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과 같은 유업계 대표주자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 프리미엄 우유 또는 대체 우유 개발에 나섰다. 최근 경쟁력 대결 심화 분위기

에 더해 건강 관리, 비건 트렌드가 겹쳐지면서 우유 품질 향상 또는 식물성·단백질 우유 등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측은 지난달 서울우유 HACCP(해썹) 인증 목장에서 엄선한 세균수 1A등급, 체세포수 1등급을 모두 충족한 최고 등급 우유 ‘나100% 그린라벨’을 프리미엄 우유 격으로 출시했다.

또 매일유업은 성인영양식 브랜드를 표방하며 셀렉스를 론칭한 뒤 ‘코어프로틴 프로’를 대표로 총 14종의 단백질 우유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내놨다.

이밖에 남양유업은 기존 베스트 셀러 제품에 해당하는 ‘맛있는 우유’, ‘아인슈타인’ 등의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남양유업 중앙연구소는 올 3월 식품 기업체 중 유일하게 ‘국가식품성분 데이터센터’에 선정됐으며,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 품질 제품을 선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원메미 기자 silverbeauty@

쿠광, 국내투자 확대... 김범석은 해외 전념

부산에 17만㎡ 물류센터 건립 등
올해 국내 신규 투자 1조원 넘어



(왼쪽부터) 강한승 쿠광(주) 신입 이사회 의장, 전준희 신입이사, 유인종 신입이사.

쿠광이 글로벌 경영과 국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뉴욕 증시 상장과 해외 진출을 계기로 김범석 의장은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며, 국내에서는 물류센터를 확대해 촘촘한 배송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쿠광(주)는 지난 11일 주주총회를 열고 전준희 개발총괄 부사장과 유인종 안전관리부사장을 신규 등기이사로서 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사회 의장직은 강한승 대표가 맡아 기존의 혁신 서비스는 물론 지역 투자와 고용 확대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범석 의장은 등기이사에서 내려왔다.

신규 선임된 전 부사장은 쿠광의 핵심 경쟁력인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유 부사장은 쿠광케어로 대표되는 근

로자 안전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준희 부사장은 구글, 우버 등 세계적인 IT 기업을 거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현재 로켓배송 개발 총괄을 맡고 있다. 유인종 부사장은 삼성그룹에서 안전관리 분야 출신으로는 처음 임원에 오른 산업안전 전문가로, 쿠광의 안전관리 및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기존 강한승, 박대준 각자대표 체제에 새로운 이사회가 합류함에 따라 쿠광 이사회의 부분별 전문성이 더욱 강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본 진출을 진두지휘한 김범석 의장은 뉴욕 상장법인인 쿠광의 CEO 및 이사회 의장직에 전념하며 글로벌 확장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강한승 신입 쿠광 이사회의 의장은 “쿠광은 지난 10년 동안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 기존에 없던 혁신적 서비스로 고객 경험을 창출했고, 배송인력 직고용 등으로 택배물류업계 근로 환경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공격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쿠광이 국내 물류센터 신규 투자로 발표한 누적 투자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산에도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투자금액은 2200억원이며, 17만㎡ 규모의 물류센터가 될 전망이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서울 코로나 201명 신규 확진... 이틀 연속 200명대
▲ 대선 출마 정세균, “불평등과 대결하는 경제 대통령 될 것” /사진 뉴스1

▲ 이재명-김경수 비공개 오찬... ‘친문 지지’ 이끌어냈나?
▲ ‘중국산 김치 아직 불안한데’... 5월 수입 반등



▲ 대선 출마 하태경 “청와대·국회 포함 수도 세종시로” 공약 /사진 뉴스1
▲ 사망 여성사 피해사실 노출한 공군 부대원들 입수수색